美 재할인율 인하… 서브프라임 충격 벗어나나

증시 사상 최대폭 급반등

코스피 93.20P·코스닥 48.11P↑

사이드카 발동… 투자심리 일단 안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재할인율 인하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초래된 신용경색 우려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내 증시가 사상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20일 나흘 만에 반등에 나선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 대비 93.20포인트(5.69%) 급등한 1,731.27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 상승폭은 2000년 3월2일에 세운 종전 기록(66.28포인트)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이며 상승률로는 2002년 2월14일 7.64% 급등한 이후 5년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스닥지수도 48.11포인트(7.14%) 오른 721.59로 장을 마쳤다. 상승폭은 2001년 1월22일 61.10포인트 급등한 이후 6년7개월 만에 최대이며 같은 해 9월18일 7.45% 급등한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가급등으로 오전 10시15분과 9시18분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각각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FRB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발 신용경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할인율을 0.5%포인트 인하하면서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반등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김학균 애널리스트는 "재할인율 인하를 계기로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미국발 악재의 전염효과 말고는 별다른 악재가 없었던 한국 증시가 받았던 상처도 점진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돌발 악재 출연 등에 따라 한두 차례 더 급락장이 발생할 수도 있는 등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대우증권 김성주 투자전략팀장은 "FRB의 전격적인 재할인율 인하는 심리적 패닉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주식시장을 V자형 반등으로 이끌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앞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실물경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와 미국 FRB가 시장의 기대처럼 실제로 정책금리를 인하할지 등을 놓고 한차례 정도 더 지수가 밀릴 수 있으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철회될 경우 충격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재할인율=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단기자금을 빌릴때 적용되는 금리를 말한다. 은행들은 돈이 부족하면 보통 콜시장(금융기관 간 단기자금시장)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지만 여의치 않으면 중앙은행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비상상황에서 이뤄지는 대출이라는 이유로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콜금리보다 높게 책정한다.

개인정보 동의 의무화 조치이후

초고속인터넷 업계 직격탄

신규 가입 절반이하로 줄어

텔레마케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업계가 개인정보를 얻을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치로 인해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달 27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당사자로부터 구두, 서면, 공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 하나로테레콤. LG파워콤 등 주요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이번 개정 정통망법 시행 이후 일부 업체의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실적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신규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화로 동의를 받아 녹취하는 것도 몇분 동안 고지사항을 읽어주면서 각 항목마다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이후 신규 가입자 모집 실적이 이전에 비해 80% 가까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개인 정보 동의 의무화 조치는 이미 7월부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발표한 7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현황을 보면 전체 1천180만9천85명으로 월별 순증 인원이 사장 최저인 2만6천946명에 그쳤다. /연합뉴스

광주국세청 주류 품평회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정병춘)으로부터 위촉된 주류전문가들이 20일 광주청 별관 '2007년 제 1회 대한민국 예비 주류 품평회' 행사장에서 40여종에 달하는 지역 전통주의 품질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선정된 12종의 우수주류는 다음달 7일 국세청에서 열리는 품평회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아파트 재당첨 금지 내달부터 전국 확대

공공택지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만 적용해 온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동일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한번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까지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이들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재당첨 금지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당첨 금지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이 규정을 손질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제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분양자는 물론 나머지 세대원도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9월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거나 8월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했더라도 11월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

신기술 인증 44개 선정

과학기술부는 2007년도 신기술(NET) 인증기술로 골든콘넥터산업의 '무부하 터미널 커넥터 제조기술' 등 44개 기술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기술 인증은 신청이 접수된 147개 기술에 대한 1차 서류.면접심사와 2차 현장 심사, 이해 당사자의 이의신청, 3차 종합회의심사를 거쳐 이루어졌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기술이 30개로 가장 많고 대기업 기술 11개, 공동개발 기술 3개 등이다. /연합뉴스

조선·화학·철강 등 '굴뚝업종' 선전

상장사 3년만에 실적 호전

상장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굴뚝업종'의 선전에 힘입어 3년 만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스닥 100지수나 스타지수에 편입된 우량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시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내수회복, 환율하락 등의 영향을 받아 상장사들의 실적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544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반기 전체 매출액은 343조9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27조2천억원으로 19.8%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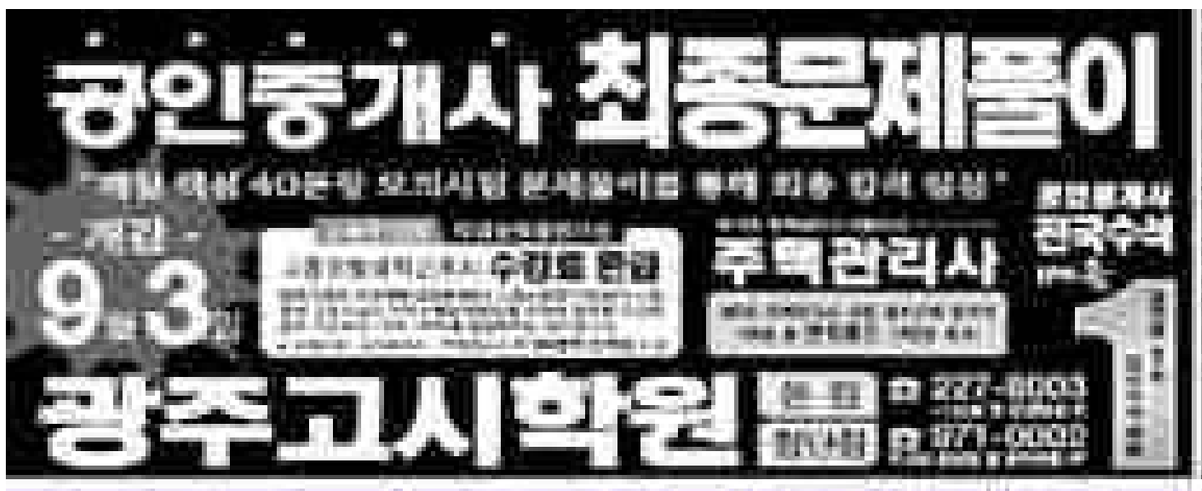
이로써 2004년 이후 줄곧 악화일로를 걷던 기업실적은 3년 만에 호전됐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장사의 실적이 개선된 것은 조선과 화학, 철강 등 이른바 '굴뚝업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조선주가 포함된 운수장비(83.03%)와 철강·금속(39.96%), 기계(194.45%), 화학(51.39%) 등 중국 관련주로 분류되는 업종은 선박 수주물량 증가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안정에 힘입어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업종도 대출자산 증가와 연체율 하락 덕분에 상반기 순이익이 15.2% 늘었다. /연합뉴스

전남 ·경남 생산 녹차잎 잔류 농약 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녹차잎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농관원은 20일 이날부터 전남과 경남 등 녹차 재배 주산지에서 생산된 녹차잎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차 인증제품 가운데 100여점을 수거, 파라티온 등 150개 농약성분 잔류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폐기나 용도전환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를 속여 판 곳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은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